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김 영 옥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주 동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김 영 욱

김영옥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주심 교육학박사 강승희



위원 교육학박사 천성문



위원 철학박사 주동범



- 목 차 -

Abstract .....	v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3. 용어의 정의 .....	6
4. 연구의 제한점 .....	7
<b>II. 이론적 배경</b> .....	<b>8</b>
1. 마을 만들기 사업 .....	8
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의 .....	8
나.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 .....	9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 .....	13
가. 주민참여의 정의 .....	13
나. 주민참여의 유형 .....	14
다.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참여 현황 .....	17
3. 사회적 자본 .....	18
가. 사회적 자본의 정의 .....	18
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20

4. 생활만족도 .....	22
가. 생활만족도의 정의 .....	22
나.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 .....	23
5. 선행연구 .....	25
가. 주민참여 생활만족도 .....	25
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	27
<b>III. 연구 방법</b> .....	<b>29</b>
1. 연구대상 .....	29
2. 측정도구 .....	31
3. 자료처리 방법 .....	34
<b>IV. 연구 결과</b> .....	<b>35</b>
<b>V. 논의 및 결론</b> .....	<b>71</b>
참고 문헌 .....	76
부 록 .....	83

- 표 목 차 -

<표 III-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0
<표 III-2> 마을 만들기 참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2
<표 III-3>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3
<표 III-4> 생활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4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	35
<표 IV-2> 성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	37
<표 IV-3> 연령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	38
<표 IV-4> 학력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	39
<표 IV-5> 거주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	40
<표 IV-6> 거주지역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	41
<표 IV-7> 활동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	42
<표 IV-8> 월 소득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	44
<표 IV-9>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45
<표 IV-10>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46
<표 IV-11>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47
<표 IV-12>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48
<표 IV-13>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49
<표 IV-14>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50
<표 IV-15> 월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52

<표 IV-16>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	53
<표 IV-17>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	54
<표 IV-18>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	55
<표 IV-19> 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	57
<표 IV-20>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	58
<표 IV-21> 활동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	59
<표 IV-22> 월 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	61
<표 IV-2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63
<표 IV-24>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4
<표 IV-25>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	66
<표 IV-26>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	67
<표 IV-27> 마을 만들기 참여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68
<표 IV-28>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69
<표 IV-29>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70

The Influenc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on the  
Satisfaction of Community Building Projects  
- A Study on the Creating a Village in Pusan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on life satisfaction.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314 male and female adults over 30 years of age who are participating i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 3 to Mar 15, 2018, and the survey tool consisted of a measure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Kim Eun-Ah, 2015), measure of social capital(Yoon Jong-Chan, 2017), and measure of life satisfaction(Kwon Han-Kyung, 2011).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verification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0.0 Program.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period of activity and the level of monthly income, community development by gender and age, life satisfaction by academic background, and social capital by residence period. Second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ng a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as well. Third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t was identified that provision of information, trust,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 make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life satisfaction, and for influence on the subfactors, provision of information,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made effect on adaptation to living environment,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made effect on family relationship, inhabitants initiative participation, cooperative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made effect on leisure and preparation for old age, provision of information, trust, and network mad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rust,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performanc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as well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lso,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have a significance as a basic data that can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residents participation in community building project and induces real residents participation. Also, as it was identified that forming social capital in addition to residents particip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life satisfaction of residents, a discussion on ways for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to form a network with each other would have to be conducted actively.

Keywords: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참여, 소통, 합의를 중요시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두되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이승옥, 외, 2011). 즉 마을주민이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이웃과의 연대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1970년대 주민의 안녕감이 취약해진 사회적 배경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주민 참여 중심의 자발적 지역사회개발 이념에 부합했다기보다는 강력한 행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정부 주도적인 지역사회개발의 성격이 강했다(김홍순, 2000, 고원, 2008). 그 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지역공동체는 더욱 약화되었고, 특히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 관심은 외면당하면서 주민참여 중심의 지역사회개발정책은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도시화에 따른 녹지의 감소 등과 같은 현상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도시 관리에 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 확산되면서(김세용 외, 2013)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2000년 초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마을사업(2001),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2002),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 마을사업(2002),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2002) 등 다양한 마을 만들기 정책사업이 현재까지 확산되어 오고 있다(김재호, 2009).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도시화 현상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 연구들은 주민들의 주거욕구 충족, 즉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상희, 2000). 그 후의 연구들은 공동체마을의 성공적 정착, 공동체마을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최정신, 2008).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균형발전 정책교본 시리즈를 발간하였으며 이중 제3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형성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통한 생활 만족도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지혜 외(2009)는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 연구에서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삶의 질은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안상유(2013)는 주민참여가 사회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여러 연구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 외, 2008, 김은아, 2015, 김권수, 2014, 박재숙, 2011, 신중진, 송승현, 2010).

그러나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참여주체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의 과정이나 마을만들기 형성 후에도 주민들 간의 관계, 기존의 인접마을과의 관계, 주민들의 거점시설운영 등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박경옥 외, 2013).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가 주로 임원이나 특정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주된 요인 될 수 있다. 둘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부분이 실적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주민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게 하고 관 주도 사업으로 변질되게 하였다(양병찬, 2014). 셋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주요 관계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마을 만들기 이후에 경제적 편익보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때로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업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지혜 외, 2009).

이는 마을 만들기 참여 자체만으로 생활의 만족도 등의 평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사회의 소속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개인들 간의 관계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갈등 및 문제를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엄태완, 2012, Putnam, 1995),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경우 이웃 간의 교류 단절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즉,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증가시키고 청년층의 장기실업 문제, 빈곤 문제 등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권혁남, 2013, 김혜선, 이지하, 이민옥, 2014). 미국 시카고의

커뮤니티 빌딩 사례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할수록 빈곤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밝혀냈다(Wilson, 1991).

HellIwell(2001)는 사회적 자본 중 신뢰는 삶의 만족에 대한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고 Bjornskov(2006) 또한 북 유럽인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정규(2009)는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시민의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뢰가 높을수록 원조의 종류가 다양하고 원조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강종수(2014), 김혜연(2011) 또한 사회적 자본 중 신뢰와 참여의 수준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박희봉 외(2005)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요인 모두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고,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적 네트워크, 가족신뢰, 이웃신뢰의 사회적 자본 요인이 결합할 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 측면에서 탈 물질적 측면으로 전환 된다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연구(박희봉 외, 2005, 최미연, 2011)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 밖의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신상식, 최수일, 2010). 이들의 연구를 고찰해볼 때, 우리의 경제수준이 점차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민 참여,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에 관한 연구(남성진·최정호·이재모, 2011. 안기덕·박승희·정술, 2012), 주민조직화 과정에서 주체의 역할, 기관의 지원,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성공 조건, 조직화 단계

등의 주민 조직화 초기단계의 원론적인 연구들과 주민조직의 초기 생성과정, 프로그램의 효과, 지역네트워크의 역할(이찬희· 문영주, 2013, 조혜진· 유동철, 201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마을 만들기와 같은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물질적, 제도적 등 외향적인 성격들에 머무르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자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심리적 변인인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의 복지와 삶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궁극적 목표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알아보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마을 만들기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마을 만들기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 사는 주민들이 유사한 유대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 나.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식적인 활동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보 제공 형 참여, 주민 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를 주민참여로 설정할 것이다.

#### 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와 연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규범 및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혜택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할 것이다.

## 라.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만족 상태로 본 논문에서는 생활환경적응, 가족관계, 여가 및 노후준비, 대인관계, 직무수행으로 설정할 것이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부산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부산광역시 각 구별로 연구대상자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결과가 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에서 여성이 69.2%,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가 67.7%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마을 만들기 참여 방법 중 주민주도형은 생활만족도 전체 뿐 아니라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마을 만들기 사업

#### 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혹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로 정의하고 이와 유사한 말로 고을, 고장, 촌락이 사용된다. 이는 마을을 지역적 범주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주민이 만들어 내는 마을문화와 마을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호(2006)는 마을을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 우리 이웃 이라는 유사한 유대감과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최의수(2010)는 마을을 전통적 농촌이나 시골에서 함께 모여 사는 의미를 넘어서 마을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정의하여 마을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서울은 마을공동체, 충남은 희망마을로 명칭을 정의하였고 부산은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마을공동체와 마을은 상호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다(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2012). 최의수(2010)는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의 사업은 반드시 주민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산업적, 생활 서비스 적 공간의 구성영역을 검토하여야 하고, 주민의 지역적 정체성, 주민공동의 이익에 대한 공감 등 공동체적 영역도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토환경지속포럼(2012)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엇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과 전문가, 민간센터 등과 함께 지역사회가 가지는 전통이나 특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들의 정의를 통해 본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적 특징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업이다. 주민참여는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요인이자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 조건이 되고, 공동체 사업은 주민 참여, 공동 프로그램, 시행착오, 갈등 형성 및 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반복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산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급격한 산업화 이후 붕괴된 지역사회를 과거의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으로 회복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 개인만으로는 누리지 못한 삶의 만족을 마을 만들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물리적 수준의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복지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 나.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

### 1)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정책(2016년 기준)

부산광역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4.1.17.)하고 전국 최초 재단법인 부산광역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원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 아카데미 운영, 마을공동체·기업 역량강화,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노후단독주택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아카데미 운용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하여 마을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된 마을 활동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인증시스템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 마을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마을공동체·기업 역량강화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활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준비 중인 지역의 경우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이미 설립된 경우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편익시설 공간을 조성하고 사회·문화·경제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주민 행복 구현을 목적으로 2008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노후단독주택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은 60만호 단독주택지 노후 단독주택지역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수준의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산복도록, 행복마을, 정책이주지

등 낙후 지역에 기존 마을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된 사업 내용으로는 주택유지·관리서비스 및 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 및 주민 생활편의 지원 사업 등 이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주택유지보수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군 자원봉사센터, 각종복지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재단법인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의 국가정책 패러다임과 도시재생 지원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쇠퇴지역 주민의 삶을 잘 향상시키고 주민복지 구현,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2)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현황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7년 12월에 6차년도 사업까지 추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은 영주·초량 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원도심의 낙후지역인 산복도로 주거지역을 재생하는데 중심을 둔 계획으로 사업구역을 1개 권역과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둘째, 산복도륙 르네상스 2차년도 사업은 아미·감천 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산복도륙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는데 중심을 둔 계획으로 2개의 권역과 2개의 구역 그리고 구덕산, 천마산 권역으로 나누어 201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셋째, 산복도륙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은 범일·범천 구역에서 실시되었

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산복도록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는데 중심을 둔 계획으로 1개의 권역과 2개의 구역 그리고 엄광산 권역으로 나누어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넷째, 산복도록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은 좌천·수정 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역사적 인물 및 지형적 특성을 복원하는데 중심을 둔 계획으로 2의 권역과 3개의 구역 그리고 엄광산 권역으로 나누어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다섯째, 산복도록 르네상스 5차년도 사업은 충무 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역사적 인물 및 지형적 특성을 복원하는데 중심을 둔 계획으로 1의 권역과 4개의 구역 그리고 천마산 권역으로 나누어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여섯째, 산복도록 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은 가야·개금 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역사적 인물 및 지형적 특성을 복원하는데 중심을 둔 계획으로 1의 권역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

### 가.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는 1960년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참여민주주의의 물결과 더불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념이다(김경화·반영운·손철희, 2014).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지치가 실시된 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현안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한 참여의 중요성이 확산하였다. 이후 주민들과 행정의 협력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 또한 주목 받게 되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주민참여는 참여의 범주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먼저 범주에 따른 개념으로는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협의의 주민 참여는 정책결정자의 충원이나 정책결정에 일정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주민의 활동, 정부에서의 영향력 행사로 개념화할 수 있다. 협의의 주민참여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지지를 위한 시민활동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활동을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주민참여는 정치적 기관과 사적기관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주민의 정치적 행위를 정의할 수 있다. 최광의 주민 참여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주민 스스로 하는 공공활동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학자에 따른 주민참여의 정의에서, Arnstein(1969)은 경제적 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된 일반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이며 정책의 형성과 사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Cunningham(1972)은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Huntington & Nelson(1976)은 주민참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통제장치라고 하였다(당인숙, 2017, 재인용). 한편 국내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백완기(1994)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최창호(2009)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은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의하였다. 참여의 균형을 강조한 하세헌, 윤이화(2011)는 주민참여에 대하여 거주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민참여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되고, 주민참여의 형태나 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정세욱, 1998). 또한 주민참여 명칭 또한 시민참여, 고객참여, 대중 참여, 최대한의 참여, 지역민주주의, 도시 분권화 등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임성한, 1981).

## 나. 주민참여의 유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에서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참여가 있을 수 있고 학자들 역시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다. 먼저 Zimmerman(1986)은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능동적인 참여와 수동적인 참여로 분류하였다. 능동적 참여란 공청회, 자원봉사, 주민투표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수동적 참여란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정보공개, PR, 여론조사 등

과 같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Arnstein(1969)는 정책결정의 실질적인 참여단계의 정도에 따라 비참여단계(조작, 치료), 명목적 참여단계(정보제공, 의견수립), 주민권력단계(협동, 권한위임, 주민통제) 등 총 8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비참여단계의 조작은 주민참여의식의 기초단계로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주민을 조작하는 단계이고 치료는 공공에 의해 주민들을 교정·교육하는 단계로 공공이 주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이다. 명목적 단계의 정보제공은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인 정보 제공을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이고, 의견수립은 정부가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단계이다. 주민권력단계의 협동은 행정과 주민이 정책결정에 공동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권력을 재분배하는 단계이고 권한위임은 주민이 실질적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단계이며, 주민통제는 정부가 아닌 주민이 완전한 주인이 되어 정부정책에 관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이다.

OECD(2001)는 주민의 협력적 태도에 따라 적극적 참여, 협의 형 참여, 그리고 정보 제공 형 참여로 구분하였다. 적극적 참여단계에서 정보 제공 형 참여의 단계로 갈수록 행정에 미치는 주민참여의 영향력은 감소한다. 적극적 참여가 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협의 형은 주민과 정부가 의사소통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형은 정부가 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도 주민참여 유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승중(2002)은 주민참여 유형을 정부와 시민의 영향력 관계 또는 민·관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적극형 참여, 협의형 참여, 정보제공형 참여로 구성하였고, 전영평 외(2004)는 제도적 주민참여와 비제도적 주민참여로

주민참여의 차원을 구분하였다. 제도적 참여로는 선거, 반상회, 위원회, 조례제정개폐 청구 등이고 비제도적 참여로는 단체장 면담, 지방의원을 통한 청원, 담당공무원 명담, 집단민원 등이 있다.

김근호 외(2012)는 주민의 참여방식(직접적 참여, 간접적 참여)과 주도권 여부에 따른 참여방식으로(행정주도형 참여, 주민 주도적 참여, 주민·외부 지원참여) 분류하였다. 먼저 주민 참여방식의 직접적 참여는 실질적 참여이고 간접적 참여는 비공식적 참여이다. 주도권여부에 따른 참여방식 중 첫째, 행정주도형 참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관련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거나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과 같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보 제공 형 참여이다. 둘째, 주민 주도적 참여는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외부 지원참여는 주민과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외부 지원과 함께 민·관이 양 방향적 관계 관계를 가지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협력적 참여이다.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마을 만들기 계획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 여부에 따른 참여 유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보 제공형 참여는 마을 만들기 관련 마을조사, 마을 만들기 주민 설명회, 마을 만들기 공청회, 안내문 지원 등의 참여 방식으로 행정의 전달체계에서 시간, 인력, 예산 등을 줄이고 일시에 많은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반면에 주민의 능동적 참여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둘째 주민 주도적 참여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의제, 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모집, 마을비전 수립 참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모임 등으로 정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 과정에서 주민의 동등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에 행정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단점도 한 가지고 있다. 셋째, 협력적 참여는 마을 만들기 관련 민·관 토론, 민·관 협의, 마을 만들기 자문 참여 등의 참여 방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합리적이고 일치적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정보제공형 참여보다 행정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한 가지고 있다.

#### 다.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참여 현황

산복도로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 복원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사업으로서 주민참여형 종합 마을재생 프로젝트로서 추진 중에 있다. 대상자는 원도심 지역 내 산복도로일원 주거지역이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총 6개 구의 54개동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업구역은 행정구역과 지형, 그리고 생활공동체 등을 고려하고 녹지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3개 권역 9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었다. 문화와 공간, 생활재생 등 자력형 복합재생이 사업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권역별 상생적, 순차적 개발의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업기간은 총 10개년 사업으로써 사업의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다음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 사업개요이다. 대상지역은 원도심 주거지역 산복도로(54개동, 634천명)이고 사업방법은 3개 권역, 9개 사업구역으로 순차적 시행 예정이다. 사업비는 1,500억원('11년 118억원, '12년 134억원)이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먼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로 볼 수 있다. 25개 마을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653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다.

### 3. 사회적 자본

#### 가. 사회적 자본의 정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와 자본이 결합된 개념으로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개인과 집단이 협력하도록 하는 자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홍영란, 2007). 인적자본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의 역량 수준이나 노동력으로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비하여,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소속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에 의하여 평가된다(김한별, 2007).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1980년대 들어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5) 등과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먼저 Bourdieu(1986)는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 하였다면, Coleman (1988)은 집단이 아닌 개인들 간의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 하였다. 이에 비해 Putnam(1995)은 그의 저서 “Bowling alone(나홀로 볼링)”을 통해 지역사회특성을 광의적 개념 즉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회적 자본이 출현하게 되었다. 1980년에 들어 사회적 자본이 주목받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인적자본이 개인 간 불평등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였다.

인적자본이 개인에게는 소득수준의 성장이, 국가로서는 경제성장이 주된 관심사였던 시대에 최적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 물질 자본이 개인적 성취를 위한 이기적 도구로 사용되는데 반발하면서 부각된 공익적 자본이다(오욱환, 2013).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 물질 자본과 달리 개인이나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

로 잡을 수 없는 무형의 형태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적 자본과 물질 자본이 개인적 속성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다(박순미, 2001).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적 혼돈이 심해질수록 그 효용성은 증가할 것이다(김태호, 2015).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연구자의 인식, 연구목적, 적용대상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개념적 모호성이 있어 개념적 정의가 일치적이지는 않다. 먼저 외국 연구에 따르면 Bourdieu(1986)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또는 상호 인식과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 연결된 실제적, 잠재적 자원의 집합체로, Coleman(1988)은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Putnam(1995)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와 연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규범 및 신뢰로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소진광(2000)은 목적과 수단을 결합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나 공감대와 같은 동태적 구조 즉 사람이나 집단 간 관계의 질로, 최정철(2011)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소유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로, 박현아(2011)는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혜택으로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념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은 그 의미가 매우 다차원적이고 다의적이라 그 본질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요소들을 열거함으로써 개념을 정의하거나 측정하는 경향이 많다(임우석, 2009).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 간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외국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를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으로, Fukuyama(1995)는 신뢰로, Nahapiet와 Ghoshal(1998)은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으로, Lin(2001)은 네트워크와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참여로 보는 연구자(김태훈, 2016; 장백기, 2011; 장유미, 2011)와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보는 연구자(박태정, 2007; 이미라, 2011)로 크게 나누어진다. 또한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강정규, 2015; 김태호, 2015; 임우석, 2009).

본 연구에서는 강정규(2015), 김태호(2015), 임우석(2009) 등과 같이 사회적 자본을 신뢰, 사회규범, 참여, 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요소로서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Putnam, 1995). Lin(2001)은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할 것을 기대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Coleman(1988)은 신뢰란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릎 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신뢰의 세 가지 유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김혜정(2015)은 신뢰를 정치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로

구분하였는데, 정치적 신뢰는 정부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의미하고 사회적 신뢰는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대, 협력, 공감, 호혜성 등을 의미한다.

첫째,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언어, 행동양식, 인식을 통해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조성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적자본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Boland & Tenkasi, 1995). Putnam(1995)은 규범에서 호혜성을 가장 강조 하면서 특히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을 황금률과 같다고 하였고, Coleman(1988)은 상호부조의 규범을 강조하면서 상호부조의 규범을 호혜성과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공공재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며, 가족의 이해를 위한 봉사, 상호 격려와 헌신, 위로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중철, 2013).

둘째, 참여이다. Putnam(1995)은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로 사회적 자원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우석, 2009). 시민적 참여는 공동체 활동과 연계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네트워크 안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네트워크 형성은 사회규범과 신뢰 조성에 영향을 끼쳐 사회적 상호작용 및 지식교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지적 자본 상호 간에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박희봉, 이희창, 2005). Coleman(1988)은 사회적 관계가 개인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정보소통의 통로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맺어진 사회적 관계를 잘 활용하면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Putnam(1995)은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교환을 촉진시켜 풍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시민참여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수직적 네트워크보다 공동체에서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강은영, 2016).

## 4. 생활만족도

### 가. 생활만족도의 정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과 성취한 것에 대한 일치정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도 볼 수 있다(최재성, 1986, George, 1979). 생활만족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Costanza, 2008)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 평가에 따른 생활만족도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삶의 질, 행복감, 심리적 복지 개념, 주관적 복지 등(김숙자, 2017)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고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먼저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Neugarten 등(1961)은 생활만족도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면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iener(1984)는 개인의 전체적인 삶 혹은 특정한 부분으로의 삶에 대한 주관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로 정의하였고, Sousa 등(2001)은 주위의 환경과 삶의 변화를 잘 수용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삶의 욕구만족으로 정

의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성재(1986)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이 인식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에 있어서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를 포함한 함축된 정의로 전생애적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영민(2013)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평가적 개념을 적용하여 행복, 기쁨, 삶의 좋은 상태등과 같은 긍정적 평가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지만 우울, 불행사건 등과 같은 부정적 평가는 생활만족도를 저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생활만족도 개념은 현재 생활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거나 인지하는 긍정적 경험(고영준, 2008, 임창희, 2004, 광민주,이희준, 2015)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이묘숙, 윤명숙 2011),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만족 상태라고 할 수 있다(최재성, 1986, 허은진, 2016).

이에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느끼는 생활 환경, 가족관계, 여가, 대인관계, 직무수행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나.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정도이므로 개인이 가지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서 각 변수들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로유

형, 소득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근, 2008, 박기남, 2004). 그 이유는 여성은 대체로 가정생활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생활을 한 까닭에 남성보다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더 경험하게 됨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이혜자 외, 2003).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강은택, 마강래, 2016, 허준수, 2004). 연령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오영희, 2005, 권중돈, 2010)와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한정란, 김수현, 2004)가 있다. 그리고 연령은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기남, 2004, 허준수, 2004).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재영, 2013, 이은아, 2017).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은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 여유를 누릴 가능성이 많으며 사회활동의 폭도 넓어짐으로써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소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유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용형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었고(이현송, 1999), 정규직 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은택, 2016). 하지만 이명예(2004)는 취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상경, 2012, 김미영, 박미선, 2012) 특히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박미석, 2012). 반면에 소득수준과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으며(이명주, 2002), 오히려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낮은 결과(김윤민, 2003)도 있어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활만족도에 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소득수준 그 자체보다는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일 수 있다(권용선, 백경숙, 2007)

다음으로 심리·정서적 요인에서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년기 남성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고(이정미, 2003), 우울감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김귀분, 2013). 이는 우울과 생활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허준수, 2004).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김미정, 2012) 노인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송자, 2005).

## 5. 선행연구

### 가. 주민참여와 생활만족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바람직한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개발 정책의 한 유형이다. 사업의 결과는 마을축제나 지역 활성화센터와 영농법인 활동을 통하여 주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

는 비 물리적 활동효과와 생활공간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물리적 형태의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신중진· 송승헌, 2010). 그리고 비 물리적 활동 효과는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문화적 만족감을, 물리적 형태의 효과는 경제적 만족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도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심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김영외(2008)은 사업성과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구축으로 보고 연구한 결과 마을 만들기의 자발적 참여는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서울시, 고양시, 수원시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체육행사, 절기축제, 장터, 마을문화체육행사, 지역 특산물 축제 등의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와 마을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김권수(2014)는 마을 문화체육행사 가운데에서도 절기축제 참여, 지역특산물축제 참여, 체육행사 참여, 기타 마을축제 참여는 마을 만족도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마을문화체육행사 가운데 장터참여는 마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은아(2015)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 만들기 참여, 주민 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는 사회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 제공 형 참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안상유(2013)는 만족도를 경제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주민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는 경제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참여가 사회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참여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거버넌스 모델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지혜 등(2009)에 따르면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사람이 오히려 사업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만들기 참여 자체만으로 삶의 질 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행정주도형 마을 만들기 참여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볼 때 마을 만들기의 최종목적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할 것이라고 본다(진재문, 2014).

#### 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와 연관되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이정규(2009)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시민의 참여와 같은 사회자본이 다양한 사회현상, 정서적 안정, 빈곤에 대한 대책, 지방자치의 발달, 민주주의의 확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높은 신뢰를 보였으나 공적인 관계에서는 대단히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공적 관계의 신뢰가 결연된 상태에서 사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길성, 2002; 이정규, 2009). 강중수(2014)의 연구에서 사회자본과 주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특히 응답자가 여성이고, 연령이 적

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참여, 신뢰,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참여와 공적신뢰는 매우 낮았다.

사회적 자본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으로 네트워크, 신뢰, 사회 참여, 규범과 같은 요인은 단편적으로 혹은 여러 개를 결합하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신상식·최수일, 2010).

개인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종류 또한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가 높을수록 원조의 종류가 다양하고 원조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규, 2009; Helliwell, 2006), 규범의 경우 개인적 능력, 자유의 제한으로 선택과 수요, 가치, 기대에 따라 긍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성과 규범의식 등은 심리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철희 등, 2015). 즉 신뢰가 촉진되고 호혜적 규범의식이 형성되면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적·사적 연결망이 촉진될 수 있고 이는 주관적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김혜연(2011). 또한 사회 자본 중 신뢰와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회의 제공을 통한 사회자본 축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볼 때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시민적 참여,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홍, 2005; 이정규, 2009; 신상식, 최수일, 2010).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2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360부를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으로 배포하여 334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한 31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69.2%, 남자가 37.1%로 여자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31.6%), 30, 40대(2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34.5%)과 고등학교 졸업(34.5%)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는 31.0%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1년 이상(35.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년~30년(32.9%), 15년 이하(31.3%)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으로는 원도심(동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영도구)이 5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이 27.5%, 서부산(북구, 사상구, 사하구)이 16.3%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참여 활동기간은 5년 이하(44.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년 이상(34.5%), 10년 이하(21.4%)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백만원 이하(67.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백만원 이하(16.9%), 3백만원 초과(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로는 자기소유(67.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14.45%), 전월세(11.5%), 부모의 집(6.7%)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47.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교(31.0%), 기독교(14.4%), 천주교(7.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무직(42.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원(24.0%), 자영업(20.4%), 프리랜서(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313)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16	37.1
	여자	197	62.9
연령	30, 40대	71	22.7
	50대	99	31.6
	60대 이상	143	45.7
학력	중졸 이하	97	31.0
	고졸	108	34.5
	전문대졸 이상	108	34.5
거주기간	15년 이하	98	31.3
	16년~30년	103	32.9
	31년 이상	112	35.8
거주지역	원도심	176	56.2
	동부산	86	27.5
	서부산	51	16.3
활동기간	5년 이하	138	44.1
	10년 이하	67	21.4
	11년 이상	108	34.5
월 소득	2백만원 이하	212	67.7
	3백만원 이하	53	16.9
	3백만원 초과	48	15.3
주거형태	자기소유	211	67.4
	전세	45	14.4
	전월세	36	11.5

종교	부모의 집	21	6.7
	불교	147	47.0
	기독교	45	14.4
	천주교	24	7.7
	무교	97	31.0
직업	자영업	64	20.4
	회사원	75	24.0
	프리랜서	40	12.8
	무직	134	42.8

## 2. 측정도구

### 가. 마을 만들기 참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마을 만들기 참여 척도는 Anderson(2005), 임승빈(2005), 박종관(2012), 최문형(2013)를 중심으로 구성된 김은아(2015)의 척도를 본 연구의 척도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마을 만들기 참여의 구성 요소로는 정보제공형 참여 4문항, 주민 주도적 참여 5문항, 협력적 참여 3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정보제공형 참여의 Cronbach  $\alpha$  값은 .936, 주민 주도적 참여 Cronbach  $\alpha$  값은 .954, 협력적 참여의 Cronbach  $\alpha$  값은 .945, 마을 만들기 참여 전체의 Cronbach  $\alpha$  값은 .975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참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마을 만들기 참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구분	Cronbach's $\alpha$
정보제공형 참여	4	1,2,3,4,	.936
주민주도형 참여	5	5,6,7,8,9	.954
협력적 참여	3	10,11,12,	.945
전체	12		.975

#### 나.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자본 척도는 Putman(2000)의 사회적 자본 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Word Bank(2000)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를 구성요소로 하여 김동완(2013), 서영숙(2015)의 설문지를 기초하여 윤종찬(2017)이 재구성한 척도이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는 신뢰 7문항, 사회규범 6문항, 사회참여 7문항, 네트워크 7문항 등 모두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신뢰 .786, 사회적 규범 .897, 사회참여 .861, 네트워크 .940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 전체의 Cronbach's  $\alpha$  값은 .938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구분	Cronbach's $\alpha$
신뢰	7	1,2,3,4,5,6,7	.786
사회규범	6	8,9,10,11,12,13	.897
사회참여	7	14,15,16,17,18,19,20	.861
네트워크	7	21,22,23,24,25,26,27	.940
전체	27		.938

#### 다.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 척도는 Bigot(1974)가 표준화시킨 생활만족지수(Life Satisfaction Index Well-Being:LSE-W)를 기초로 김영돈(1988)등이 번안한 설문지를 권환경(2011)이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생활만족도는 생활환경적응 7문항, 가족관계 5문항, 여가 및 노후준비 4문항, 대인관계 3문항, 직무수행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변인의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생활환경적응 .901, 가족관계 .863, 여가 및 노후준비 .813, 대인관계 .836, 직무수행 .824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 전체의 Cronbach's  $\alpha$  값은 .957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생활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구분	Cronbach's $\alpha$
생활 환경 적응	7	1,2,3,6,21,22,23	.901
가족관계	5	4,5,14,15,17	.863
여가 및 노후준비	4	8,10,12,18	.813
대인관계	3	7,11,13	.836
직무수행	4	9,16,19,20	.824
전체	23		.957

###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마을 만들기 참여는 평균 3.55점으로 나타났고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정보 제공형 참여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주도형참여(3.49점), 협력적 참여(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는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신뢰가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규범(3.37점), 사회참여(3.19점), 네트워크(3.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평균 3.6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가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환경적응(3.68점), 대인관계(3.66점), 직무수행(3.64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변인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마을 만들기 참여	정보제공형참여	313	1	5	3.72	.927
	주민주도형참여	313	1	5	3.49	.982
	협력적참여	313	1	5	3.44	1.038
	전체	313	1	5	3.55	.940
사회적	신뢰	313	2	5	3.53	.564

					3.37	
	사회규범	313	2	5		.692
	사회참여	313	1	5	3.19	.836
자본	네트워크	313	1	5	3.11	.805
	전체	313	2	5	3.30	.589
	생활환경적응	313	2	5	3.68	.663
	가족관계	313	1	5	3.70	.681
생활	여가 및 노후준비	313	1	5	3.31	.726
만족도	대인관계	313	1	5	3.66	.668
	직무수행	313	1	5	3.64	.669
	전체	313	1	5	3.60	.601

## 2.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평균차이 검증

### 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1) 성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성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자(3.82점)가 여자(3.39점)보다 마을 만들기 참여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인 정보제공형 참여, 주민주도형참여, 협력적 참여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성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N=313)

구분		N	M	SD	t
정보제공형참여	남자	116	3.92	.897	2.925**
	여자	197	3.61	.927	
주민주도형참여	남자	116	3.79	.942	4.292***
	여자	197	3.31	.964	
협력적참여	남자	116	3.74	.987	4.058***
	여자	197	3.26	1.029	
마을만들기참여	남자	116	3.82	.897	3.955***
	여자	197	3.39	.931	

\*\*p<.01, \*\*\*p<.001

## 2) 연령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연령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 마을 만들기 참여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60대 이상(3.70점)이 30, 40대(3.2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정보 제공 형 참여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50대(3.47점)와 60대(3.85)가 30, 40대(3.13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주민주도형참여와 협력적 참여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60대가 30, 40대보다 점수가 높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연령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정보 제공형 참여	30, 40대 <sup>a)</sup>	71	3.40	.975	4.929**	b, c >a
	50대 <sup>b)</sup>	99	3.77	.877		
	60대 이상 <sup>c)</sup>	143	3.85	.906		
주민 주도형 참여	30, 40대 <sup>a)</sup>	71	3.13	.982	6.866**	c>a
	50대 <sup>b)</sup>	99	3.47	1.012		
	60대 이상 <sup>c)</sup>	143	3.67	.918		
협력적 참여	30, 40대 <sup>a)</sup>	71	3.16	1.017	4.071*	c>a
	50대 <sup>b)</sup>	99	3.42	1.083		
	60대 이상 <sup>c)</sup>	143	3.58	.996		
마을 만들기 참여	30, 40대 <sup>a)</sup>	71	3.23	.942	5.167**	c>a
	50대 <sup>b)</sup>	99	3.56	.949		
	60대 이상 <sup>c)</sup>	143	3.70	.900		

\*p<.05, \*\*p<.01, \*\*\*p<.001

### 3) 학력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학력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 마을 만들기 참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학력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정보 제공형 참여	중졸 이하	97	3.76	.919	.501	-
	고졸	108	3.76	.829		
	전문대졸 이상	108	3.65	1.027		
주민 주도형 참여	중졸 이하	97	3.58	.936	.671	-
	고졸	108	3.44	.897		
	전문대졸 이상	108	3.45	1.101		
협력적 참여	중졸 이하	97	3.45	1.010	.075	-
	고졸	108	3.40	.967		
	전문대졸 이상	108	3.45	1.136		
마을 만들기 참여	중졸 이하	97	3.60	.907	.201	-
	고졸	108	3.53	.855		
	전문대졸 이상	108	3.52	1.050		

#### 4) 거주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거주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기간에 따라 마을 만들기 참여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31년 이상(3.79점)과 16년~30년(3.57점)이 15년 이하(3.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정보 제공형 참여는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1년 이상(4.01점)이 15년 이하(3.41점)보다 점수가 높

았다. 주민주도형참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1년 이상(3.69점)과 16년~30년(3.55점)이 15년 이하(3.1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참여도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1년 이상(3.65점)이 15년 이하(3.16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 분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거주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정보 제공형 참여	15년 이하 <sup>a)</sup>	98	3.41	.850	11.738***	c>a
	16년~30년 <sup>b)</sup>	103	3.71	.994		
	31년 이상 <sup>c)</sup>	112	4.01	.842		
주민 주도형 참여	15년 이하 <sup>a)</sup>	98	3.18	.908	7.888***	b, c >a
	16년~30년 <sup>b)</sup>	103	3.55	1.022		
	31년 이상 <sup>c)</sup>	112	3.69	.950		
협력적 참여	15년 이하 <sup>a)</sup>	98	3.16	.928	6.079**	c>a
	16년~30년 <sup>b)</sup>	103	3.46	1.084		
	31년 이상 <sup>c)</sup>	112	3.65	1.041		
마을 만들기 참여	15년 이하 <sup>a)</sup>	98	3.25	.845	8.991***	b, c >a
	16년~30년 <sup>b)</sup>	103	3.57	.999		
	31년 이상 <sup>c)</sup>	112	3.79	.897		

\* p<.01, \*\* p<.001

### 5) 거주지역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마을 만들기 참여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동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3.79점)이 원도심(동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영도구)(3.4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정보 제공 형 참여와 주민주도형참여는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동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이 원도심(동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영도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력적 참여는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거주지역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정보 제공형 참여	원도심 <sup>a)</sup>	176	3.63	.934	3.386*	b>a
	동부산 <sup>b)</sup>	86	3.94	.840		
	서부산 <sup>c)</sup>	51	3.67	1.000		
주민 주도형 참여	원도심 <sup>a)</sup>	176	3.36	.972	5.514**	b>a
	동부산 <sup>b)</sup>	86	3.78	.958		
	서부산 <sup>c)</sup>	51	3.42	.972		
협력적 참여	원도심 <sup>a)</sup>	176	3.34	1.048	2.688	-
	동부산 <sup>b)</sup>	86	3.65	1.020		

	서부산c)	51	3.41	.999		
마을 만들기 참여	원도심 <sup>a)</sup>	176	3.44	.945		
	동부산 <sup>b)</sup>	86	3.79	.885	4.103*	b>a
	서부산c)	51	3.50	.956		

\*p<.05, \*\*p<.01

#### 6) 활동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활동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활동기간에 따라 마을 만들기 참여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11년 이상(3.88점)이 5년 이하(3.3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정보제공형 참여, 주민주도형 참여, 협력적 참여 모두 활동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11년 이상이 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활동기간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정보 제공형 참여	5년 이하 <sup>a)</sup>	138	3.49	.932	13.547***	c> a, b
	10년 이하 <sup>b)</sup>	67	3.63	.969		
	11년 이상 <sup>c)</sup>	108	4.08	.784		
주민 주도형 참여	5년 이하 <sup>a)</sup>	138	3.30	.929	9.087***	c> a, b
	10년 이하 <sup>b)</sup>	67	3.34	1.051		

협력적 참여	11년 이상 <sup>c)</sup>	108	3.82	.926	7.188**	c> a, b
	5년 이하 <sup>a)</sup>	138	3.26	1.004		
	10년 이하 <sup>b)</sup>	67	3.32	1.060		
	11년 이상 <sup>c)</sup>	108	3.73	1.010		
마을 만들기 참여	5년 이하 <sup>a)</sup>	138	3.35	.914	10.861***	c> a, b
	10년 이하 <sup>b)</sup>	67	3.43	.984		
	11년 이상 <sup>c)</sup>	108	3.88	.860		

\*\*p<.01, \*\*\*p<.001

#### 7) 월 소득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

월 소득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월 소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참여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3백만원 초과(3.87점)가 2백만원 이하(3.4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정보제공형 참여는 월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주도형 참여와 협력적 참여는 활동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백만원 초과가 2백만원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월소득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정보 제공형 참여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66	.935	2.520	-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71	.997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99	.771		
주민 주도형 참여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40	.982	3.384*	c>a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55	1.057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80	.839		
협력적 참여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32	1.044	5.030**	c>a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53	1.013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83	.948		
마을 만들기 참여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46	.942	3.901*	c>a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60	.995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87	.799		

\*p<.05, \*\*p<.01

## 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 중 신뢰는 남자(3.62점)가 여자(3.47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N=313)

구분		N	M	SD	t
신뢰	남자	116	3.62	.647	2.152*
	여자	197	3.47	.502	
사회규범	남자	116	3.43	.780	1.112
	여자	197	3.34	.634	
사회참여	남자	116	3.29	.872	1.586
	여자	197	3.14	.811	
네트워크	남자	116	3.08	.884	-.437
	여자	197	3.13	.757	
사회적자본	남자	116	3.36	.658	1.303
	여자	197	3.27	.544	

\*p<.05

## 2)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 중 사회참여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50대(3.38점)가 30, 40대(2.92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신뢰	30, 40대 <sup>a)</sup>	71	3.44	.475	1.362	-
	50대 <sup>b)</sup>	99	3.59	.559		
	60대 이상 <sup>c)</sup>	143	3.53	.605		
사회규범	30, 40대 <sup>a)</sup>	71	3.38	.560	.783	-
	50대 <sup>b)</sup>	99	3.44	.651		
	60대 이상 <sup>c)</sup>	143	3.32	.775		
사회참여	30, 40대 <sup>a)</sup>	71	2.92	.789	6.593**	b>a
	50대 <sup>b)</sup>	99	3.38	.767		
	60대 이상 <sup>c)</sup>	143	3.20	.872		
네트워크	30, 40대 <sup>a)</sup>	71	3.05	.686	.505	-
	50대 <sup>b)</sup>	99	3.09	.727		
	60대 이상 <sup>c)</sup>	143	3.16	.907		
사회적 자본	30, 40대 <sup>a)</sup>	71	3.20	.472	1.905	
	50대 <sup>b)</sup>	99	3.37	.547		
	60대 이상 <sup>c)</sup>	143	3.30	.661		

\*\*p<.01

### 3)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 분석 결과는 <표 IV-11>와 같다.

<표 IV-11>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신뢰	중졸 이하	97	97	3.53	1.408	-
	고졸	108	108	3.46		
	전문대졸 이상	108	108	3.59		
사회규범	중졸 이하	97	97	3.27	2.092	-
	고졸	108	108	3.37		
	전문대졸 이상	108	108	3.47		
사회참여	중졸 이하	97	97	3.12	.505	-
	고졸	108	108	3.22		
	전문대졸 이상	108	108	3.23		
네트워크	중졸 이하	97	97	3.12	.241	-
	고졸	108	108	3.07		
	전문대졸 이상	108	108	3.14		
사회적 자본	중졸 이하	97	97	3.26	.779	-
	고졸	108	108	3.28		
	전문대졸 이상	108	108	3.36		

#### 4)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기간에 따라 사회적 자본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1년 이상(3.41점)과 16년~30년(3.37점)이 15년 이하(3.1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사회규범과 사회참여는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1년 이상과 16년~30년이 15년 이하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1년 이상이 1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는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신뢰	15년 이하 <sup>a)</sup>	98	3.43	.489	2.238	-
	16년~30년 <sup>b)</sup>	103	3.56	.588		
	31년 이상 <sup>c)</sup>	112	3.58	.596		
사회규범	15년 이하 <sup>a)</sup>	98	3.19	.628	5.028**	b, c >a
	16년~30년 <sup>b)</sup>	103	3.45	.752		
	31년 이상 <sup>c)</sup>	112	3.45	.663		
사회참여	15년 이하 <sup>a)</sup>	98	2.89	.733	10.273***	b, c >a
	16년~30년 <sup>b)</sup>	103	3.30	.805		
	31년 이상 <sup>c)</sup>	112	3.37	.882		
네트워크	15년 이하 <sup>a)</sup>	98	2.91	.634	4.654*	c>a
	16년~30년 <sup>b)</sup>	103	3.16	.870		
	31년 이상 <sup>c)</sup>	112	3.24	.849		
사회적 자본	15년 이하 <sup>a)</sup>	98	3.11	.481	8.389***	b, c >a
	16년~30년 <sup>b)</sup>	103	3.37	.628		
	31년 이상 <sup>c)</sup>	112	3.41	.601		

\*p<.05, \*\*p<.01, \*\*\*p<.001

### 5)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사회규범과 네트워크는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검증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신뢰	원도심 <sup>a)</sup>	176	3.52	.600	.214	-
	동부산 <sup>b)</sup>	86	3.56	.536		
	서부산 <sup>c)</sup>	51	3.49	.485		
사회규범	원도심 <sup>a)</sup>	176	3.28	.781	3.398*	n.s
	동부산 <sup>b)</sup>	86	3.47	.511		
	서부산 <sup>c)</sup>	51	3.51	.590		
사회참여	원도심 <sup>a)</sup>	176	3.21	.854	.404	-
	동부산 <sup>b)</sup>	86	3.21	.772		
	서부산 <sup>c)</sup>	51	3.10	.886		
네트워크	원도심 <sup>a)</sup>	176	3.05	.841	3.058*	n.s
	동부산 <sup>b)</sup>	86	3.29	.714		
	서부산 <sup>c)</sup>	51	3.03	.791		
사회적 자본	원도심 <sup>a)</sup>	176	3.27	.660	1.165	-

동부산 <sup>b)</sup>	86	3.38	.464
서부산 <sup>c)</sup>	51	3.28	.512

\*p<.05

### 6)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활동기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11년 이상(3.48점)이 5년 이하(3.22점)와 10년 이하(3.1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는 활동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11년 이상이 5년 이하와 10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도 활동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11년 이상이 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4>과 같다.

<표 IV-14>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신뢰	5년 이하 <sup>a)</sup>	138	3.50	.530	9.917***	c> a, b
	10년 이하 <sup>b)</sup>	67	3.32	.543		
	11년 이상 <sup>c)</sup>	108	3.69	.575		
사회규범	5년 이하 <sup>a)</sup>	138	3.31	.673	5.243**	c>

	10년 이하 <sup>b)</sup>	67	3.23	.721		
	11년 이상 <sup>c)</sup>	108	3.54	.670		a, b
	5년 이하 <sup>a)</sup>	138	3.05	.815		
사회참여	10년 이하 <sup>b)</sup>	67	3.16	.777	5.545**	c>a
	11년 이상 <sup>c)</sup>	108	3.40	.864		
	5년 이하 <sup>a)</sup>	138	3.03	.772		
네트워크	10년 이하 <sup>b)</sup>	67	2.98	.763	4.578*	c> a, b
	11년 이상 <sup>c)</sup>	108	3.30	.844		
	5년 이하 <sup>a)</sup>	138	3.22	.566		
사회적 자본	10년 이하 <sup>b)</sup>	67	3.17	.588	8.291***	c> a, b
	11년 이상 <sup>c)</sup>	108	3.48	.582		

\*p<.05, \*\*p<.01, \*\*\*p<.001

#### 7) 월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월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월 소득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백만원 초과(3.62점)가 3백만원 이하(3.29점)와 2백만원 이하(3.2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 모두 월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신뢰는 3백만원 초과가 3백만원 이하와 2백만원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는 3백만원 초과가 3백만원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5>과 같다.

<표 IV-15> 월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신뢰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47	.529	7.686**	c> a, b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51	.622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81	.572		
사회규범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31	.696	5.118**	c>b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37	.696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66	.603		
사회참여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10	.819	6.847**	c>b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20	.862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59	.782		
네트워크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04	.811	4.916**	c>b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08	.786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44	.730		
사회적 자본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23	.573	9.225***	c> a, b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29	.594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62	.562		

\*p<.05, \*\*p<.01, \*\*\*p<.001

#### 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1)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IV-16>와 같다.

<표 IV-16>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N=313)

구분		N	M	SD	t
생활환경적응	남자	116	3.72	.751	.799
	여자	197	3.65	.607	
가족관계	남자	116	3.70	.773	-.131
	여자	197	3.71	.623	
여가 및노후준비	남자	116	3.33	.791	.468
	여자	197	3.29	.687	
대인관계	남자	116	3.64	.750	-.446
	여자	197	3.67	.616	
직무수행	남자	116	3.64	.799	.131
	여자	197	3.63	.582	
생활만족도	남자	116	3.60	.704	.186
	여자	197	3.59	.534	

### 2)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 중

생활환경적응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50대(3.80점)가 60대(3.57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환경적응	30, 40대 <sup>a)</sup>	71	3.70	.621	3.618*	b>c
	50대 <sup>b)</sup>	99	3.80	.561		
	60대 이상 <sup>c)</sup>	143	3.57	.733		
가족관계	30, 40대 <sup>a)</sup>	71	3.65	.644	.472	-
	50대 <sup>b)</sup>	99	3.75	.563		
	60대 이상 <sup>c)</sup>	143	3.69	.770		
여가 및 노후준비	30, 40대 <sup>a)</sup>	71	3.23	.661	1.758	-
	50대 <sup>b)</sup>	99	3.42	.694		
	60대 이상 <sup>c)</sup>	143	3.27	.773		
대인관계	30, 40대 <sup>a)</sup>	71	3.61	.592	.316	-
	50대 <sup>b)</sup>	99	3.69	.579		
	60대 이상 <sup>c)</sup>	143	3.66	.757		
직무수행	30, 40대 <sup>a)</sup>	71	3.68	.683	1.629	-
	50대 <sup>b)</sup>	99	3.71	.546		
	60대 이상 <sup>c)</sup>	143	3.56	.733		
생활만족도	30, 40대 <sup>a)</sup>	71	3.57	.542	1.278	-
	50대 <sup>b)</sup>	99	3.68	.507		
	60대 이상 <sup>c)</sup>	143	3.55	.682		

\*p<.05

### 3)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 생활만족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3.74점)이 중학교 졸업 이하(3.45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생활환경적응, 여가 및 노후준비, 직무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생활환경적응과 직무수행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 및 노후준비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8>와 같다.

<표 IV-18>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환경적응	중졸 이하 <sup>a)</sup>	97	3.45	.685	11.467***	c> a, b
	고졸 <sup>b)</sup>	108	3.67	.645		
	전문대졸 이상 <sup>c)</sup>	108	3.88	.599		
가족관계	중졸 이하 <sup>a)</sup>	97	3.62	.712	1.158	-
	고졸 <sup>b)</sup>	108	3.72	.680		
	전문대졸 이상 <sup>c)</sup>	108	3.76	.651		
여가 및 노후준비	중졸 이하 <sup>a)</sup>	97	3.14	.731	5.425**	c>a
	고졸 <sup>b)</sup>	108	3.28	.718		
	전문대졸 이상 <sup>c)</sup>	108	3.47	.702		

대인관계	중졸 이하 <sup>a)</sup>	97	3.62	.726	1.485	-
	고졸 <sup>b)</sup>	108	3.60	.644		
	전문대졸 이상 <sup>c)</sup>	108	3.75	.633		
직무수행	중졸 이하 <sup>a)</sup>	97	3.43	.685	11.327***	c> a, b
	고졸 <sup>b)</sup>	108	3.61	.651		
	전문대졸 이상 <sup>c)</sup>	108	3.85	.611		
생활만족도	중졸 이하 <sup>a)</sup>	97	3.45	.630	6.267***	c>a
	고졸 <sup>b)</sup>	108	3.58	.588		
	전문대졸 이상 <sup>c)</sup>	108	3.74	.559		

#### 4) 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 중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모두 31년 이상이 1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환경 적응	15년 이하 <sup>a)</sup>	98	3.60	.652	1.087	-
	16년~30년 <sup>b)</sup>	103	3.69	.667		
	31년 이상 <sup>c)</sup>	112	3.73	.669		
가족관계	15년 이하 <sup>a)</sup>	98	3.54	.651	4.216*	c>a
	16년~30년 <sup>b)</sup>	103	3.76	.669		
	31년 이상 <sup>c)</sup>	112	3.79	.697		
여가 및 노후준비	15년 이하 <sup>a)</sup>	98	3.21	.625	1.277	-
	16년~30년 <sup>b)</sup>	103	3.32	.753		
	31년 이상 <sup>c)</sup>	112	3.37	.781		
대인관계	15년 이하 <sup>a)</sup>	98	3.49	.606	4.557*	c>a
	16년~30년 <sup>b)</sup>	103	3.71	.676		
	31년 이상 <sup>c)</sup>	112	3.75	.690		
직무수행	15년 이하 <sup>a)</sup>	98	3.55	.682	1.656	-
	16년~30년 <sup>b)</sup>	103	3.63	.647		
	31년 이상 <sup>c)</sup>	112	3.72	.674		
생활 만족도	15년 이하 <sup>a)</sup>	98	3.48	.572	2.913	-
	16년~30년 <sup>b)</sup>	103	3.62	.583		
	31년 이상 <sup>c)</sup>	112	3.67	.632		

\*p<.05

##### 5)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는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대인관계는 동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이 원도심(동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영도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환경 적응	원도심 <sup>a)</sup>	176	3.69	.663	2.411	-
	동부산 <sup>b)</sup>	86	3.75	.684		
	서부산 <sup>c)</sup>	51	3.50	.610		
가족관계	원도심 <sup>a)</sup>	176	3.67	.696	3.324*	n.s
	동부산 <sup>b)</sup>	86	3.85	.691		
	서부산 <sup>c)</sup>	51	3.56	.572		
여가 및 노후준비	원도심 <sup>a)</sup>	176	3.35	.722	2.519	-
	동부산 <sup>b)</sup>	86	3.35	.756		
	서부산 <sup>c)</sup>	51	3.10	.665		
대인관계	원도심 <sup>a)</sup>	176	3.59	.677	4.555*	b>a
	동부산 <sup>b)</sup>	86	3.84	.658		
	서부산 <sup>c)</sup>	51	3.59	.601		
직무수행	원도심 <sup>a)</sup>	176	3.62	.677	2.606	-

	동부산 <sup>b)</sup>	86	3.76	.676		
	서부산 <sup>c)</sup>	51	3.50	.607		
	원도심 <sup>a)</sup>	176	3.58	.622		
생활 만족도	동부산 <sup>b)</sup>	86	3.71	.593	3.103*	n.s
	서부산 <sup>c)</sup>	51	3.45	.509		

\*p<.05

#### 6) 활동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활동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활동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11년 이상(3.75점)이 5년 이하(3.53점)와 10년 이하(3.4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여가 및 노후준비, 대인관계, 직무수행에서 활동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는 11년 이상이 5년 이하와 10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수행은 11년 이상이 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 및 노후준비는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활동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환경 적응	5년 이하 <sup>a)</sup>	138	3.61	.666	2.765	-

	10년 이하 <sup>b)</sup>	67	3.61	.608		
	11년 이상 <sup>c)</sup>	108	3.80	.682		
	5년 이하 <sup>a)</sup>	138	3.62	.693		
가족관계	10년 이하 <sup>b)</sup>	67	3.59	.620	6.244**	c> a, b
	11년 이상 <sup>c)</sup>	108	3.89	.668		
	5년 이하 <sup>a)</sup>	138	3.26	.694		
여가 및 노후준비	10년 이하 <sup>b)</sup>	67	3.18	.716	3.057**	n.s
	11년 이상 <sup>c)</sup>	108	3.44	.759		
	5년 이하 <sup>a)</sup>	138	3.60	.671		
대인관계	10년 이하 <sup>b)</sup>	67	3.49	.612	6.497**	c> a, b
	11년 이상 <sup>c)</sup>	108	3.83	.663		
	5년 이하 <sup>a)</sup>	138	3.57	.706		
직무수행	10년 이하 <sup>b)</sup>	67	3.55	.602	3.954*	c>a
	11년 이상 <sup>c)</sup>	108	3.78	.641		
	5년 이하 <sup>a)</sup>	138	3.53	.611		
생활 만족도	10년 이하 <sup>b)</sup>	67	3.48	.558	5.508**	c> a, b
	11년 이상 <sup>c)</sup>	108	3.75	.591		

\*p<.05, \*\*p<.01

#### 7) 월 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월 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월 소득에 따라 생활만

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3백만원 초과(3.92점)와 3백만원 이하(3.76점)가 2백만원 이하(3.4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생활환경적응, 가족관계, 여가 및 노후준비, 대인관계에서 모두 월소득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생활환경적응과 직무수행은 3백만원 초과와 3백만원 이하가 2백만원 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여가 및 노후준비, 대인관계는 3백만원 초과가 2백만원 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IV-22>과 같다.

<표 IV-22> 월 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N=313)

구분	N	M	SD	F	Scheffe	
생활환경적응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55	.674	13.061***	b, c >a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85	.611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4.02	.494		
가족관계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62	.698	4.924**	c>a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85	.615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90	.613		
여가 및 노후준비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15	.713	18.097***	c>a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50	.682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77	.583		
대인관계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57	.685	6.995**	c>a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77	.546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93	.626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52	.671		
직무수행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80	.593	12.886***	b, c >a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99	.578		
	2백만원 이하 <sup>a)</sup>	212	3.48	.600		
생활만족도	3백만원 이하 <sup>b)</sup>	53	3.76	.537	13.851***	b, c >a
	3백만원 초과 <sup>c)</sup>	48	3.92	.517		

\*\*p<.01, \*\*\*p<.001

### 3. 마을만들기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인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마을 만들기 참여는 사회적 자본( $r=.601$ ,  $p<.001$ )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만족도( $r=.479$ ,  $p<.001$ )와도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도 생활만족도( $r=.645$ ,  $p<.001$ )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하위변인들 간에도 모두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정보제공 형참여	주민주도 형참여	협력적 참여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	생활환경 적응	가족관계	여가 및 노후준비	대인관계	직무수행	마을만들 기참여	사회적 자본
주민주도형 참여	.863***	1												
협력적 참여	.824***	.925***	1											
신뢰	.483***	.465***	.474***	1										
사회규범	.394***	.374***	.394***	.565***	1									
사회참여	.535***	.534***	.562***	.468***	.468***	1								
네트워크	.468***	.444***	.451***	.542***	.603***	.614***	1							
생활환경 적응	.447***	.384***	.425***	.508***	.366***	.484***	.439***	1						
가족관계	.423***	.387***	.393***	.549***	.392***	.475***	.483***	.707***	1					
여가 및 노후준비	.371***	.333***	.379***	.492***	.301***	.438***	.446***	.740***	.601***	1				
대인관계	.479***	.427***	.424***	.615***	.440***	.409***	.559***	.697***	.701***	.689***	1			
직무수행	.444***	.379***	.391***	.566***	.398***	.477***	.509***	.835***	.746***	.762***	.765***	1		
마을만들기 참여	.933***	.973***	.962***	.496***	.405***	.569***	.475***	.437***	.419***	.378***	.462***	.422***	1	
사회적 자본	.581***	.562***	.583***	.756***	.800***	.814***	.866***	.551***	.580***	.514***	.612***	.595***	.601***	1
생활만족도	.489***	.432***	.456***	.618***	.429***	.517***	.552***	.900***	.849***	.864***	.871***	.930***	.479***	.645***

\*\*\* p<.001

#### 4.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8.9%( $R^2=.489$ )로 나타났으며, 마을 만들기 참여 하위요인 중 정보제공형 참여( $\beta=.218, p<.05$ )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신뢰( $\beta=.395, p<.001$ )와 사회참여( $\beta=.154, p<.01$ ) 그리고 네트워크( $\beta=.207, p<.001$ )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만 분석에 투입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것으로 마을 만들기 참여를 통제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상수)	1.091	.165		6.617
정보제공형참여	.141	.054	.218	2.605*
주민주도형참여	-.123	.075	-.201	-1.646
협력적참여	.065	.064	.112	1.011

신뢰	.420	.058	.395	7.244***
사회규범	-.040	.048	-.046	-.841
사회참여	.111	.041	.154	2.693**
네트워크	.155	.045	.207	3.472***

R<sup>2</sup>=.489 F=41.724\*\*\*

\*p<.05, \*\*p<.01, \*\*\*p<.001

## 5.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

### 1)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6.8%(R<sup>2</sup>=.368)로 나타났으며, 마을 만들기 참여 하위요인 중 정보제공형 참여( $\beta$ =.253,  $p$ <.01)는 생활환경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주도형 참여( $\beta$ =-.326,  $p$ <.05)는 생활환경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제공형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환경적응도가 높아지고 주민주도형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환경적응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신뢰( $\beta$ =.295,  $p$ <.001)와 사회참여( $\beta$ =.215,  $p$ <.01)가 생활환경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와 사회참여도가 높을수록 생활환경적응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5>과 같다.

<표 IV-25>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상수)	1.348			6.663
정보제공형참여	.181	.067	.253	2.714**
주민주도형참여	-.220	.092	-.326	-2.404*
협력적참여	.145	.079	.227	1.837
신뢰	.347	.071	.295	4.875***
사회규범	-.017	.059	-.017	-.283
사회참여	.170	.051	.215	3.372**
네트워크	.067	.055	.082	1.231
R <sup>2</sup> =.368 F=25.357***				

\*p<.05, \*\*p<.01, \*\*\*p<.001

## 2)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8.3%(R<sup>2</sup>=.383)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참여 하위요인은 가족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신뢰( $\beta$ =.350, p<.001)와 사회참여( $\beta$ =.182, p<.01) 그리고 네트워크( $\beta$ =.151, p<.05)가 생활환경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가족관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상수)	1.146	.205		5.586
정보제공형참여	.100	.068	.137	1.487
주민주도형참여	-.026	.093	-.038	-.284
협력적참여	-.010	.080	-.015	-.120
신뢰	.423	.072	.350	5.850***
사회규범	-.015	.060	-.015	-.253
사회참여	.148	.051	.182	2.887**
네트워크	.127	.056	.151	2.293*
R <sup>2</sup> =.383 F=27.024***				

\*p<.05, \*\*p<.01, \*\*\*p<.001

### 3)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여가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여가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3.3%(R<sup>2</sup>=.333)로 나타났으며, 마을 만들기 참여 하위요인 중 협력적 참여( $\beta$ =.279, p<.05)는 여가 및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주도형 참여( $\beta$ =-.311, p<.01)는 여가 및 노후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적 참여가 많을수록 여가 및 노후준비도가 높아지고 주민주도형 참여가 많을수록 여가 및 노후준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신뢰( $\beta$ =.335, p<.001)와 사회참여( $\beta$

=.166,  $p < .05$ ) 그리고 네트워크( $\beta = .194$ ,  $p < .01$ )가 여가 및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와 사회참여도 그리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여가 및 노후준비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여가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여가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상수)	1.005	.228		4.416
정보제공형 참여	.091	.075	.116	1.216
주민주도형 참여	-.230	.103	-.311	-2.231**
협력적 참여	.195	.089	.279	2.200*
신뢰	.431	.080	.335	5.374***
사회규범	-.129	.066	-.123	-1.946
사회참여	.144	.057	.166	2.540*
네트워크	.175	.062	.194	2.845**
$R^2 = .333$ $F = 21.739^{***}$				

\* $p < .05$ , \*\* $p < .01$ , \*\*\* $p < .001$

#### 4)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7.2%( $R^2 = .472$ )로 나타났으며, 마을 만들기 참여 하위요인 중 정보제공형 참여( $\beta = .224$ ,  $p < .01$ )는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제공형 참여가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신뢰( $\beta=.400, p<.001$ )와 네트워크( $\beta=.296, p<.001$ )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와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대인관계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8>와 같다.

<표 IV-28>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상수)	.902	.186		4.848
정보제공형참여	.161	.061	.224	2.633**
주민주도형참여	-.026	.084	-.039	-.313
협력적참여	-.013	.073	-.020	-.173
신뢰	.473	.066	.400	7.219***
사회규범	-.009	.054	-.009	-.164
사회참여	-.035	.046	-.044	-.758
네트워크	.245	.050	.296	4.874***
$R^2=.472 \quad F=38.918^{***}$				

\*\*p<.01, \*\*\*p<.001

### 5)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1.3%( $R^2=.413$ )로 나타났으며, 마을 만들기 참여 하위요인 중 정보제공형 참여( $\beta=.240, p<.01$ )는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제공형 참여가 많을수록 직무수행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신뢰( $\beta=.361, p<.001$ )와 사회참여( $\beta=.159, p<.05$ ) 그리고 네트워크( $\beta=.191, p<.01$ )가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와 사회참여도 그리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수록 직무수행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IV-29>과 같다.

<표 IV-29>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상수)	1.053	.197		5.353
정보제공형참여	.173	.065	.240	2.677**
주민주도형참여	-.111	.089	-.163	-1.251
협력적참여	.007	.077	.011	.091
신뢰	.429	.069	.361	6.191***
사회규범	-.032	.057	-.033	-.565
사회참여	.127	.049	.159	2.586*
네트워크	.159	.053	.191	2.987**

$R^2=.413$   $F=30.656^{***}$

\* $p<.05$ , \*\* $p<.01$ , \*\*\*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마을 만들기 참여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마을 만들기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역, 활동기간,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 참여의 경우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30, 40대보다, 거주기간에서는 거주기간이 긴 것이 짧은 것보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산권이 원도심보다, 활동기간에서는 활동기간이 긴 것이 짧은 것보다, 월소득의 경우 월소득이 많은 것이 작은 것보다 마을 만들기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인숙(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활동기간, 월 소득)과 다른 부분(연령, 거주기간)이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69.2%가 여성이지만 이들은 남성보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작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을만들기 참여는 여성이 많지만 활동은 남성이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성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밖의 변인에 연령이 많을수록 ,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마을 만들기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쩔 당연한 결과이지만 아쉬운 점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가 전 연령층에서, 거주기간이나 월 소

득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성별은 신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은 사회참여에서는 50대가 30,40대보다, 거주기간은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에서 주로 16년 이상이 15년 이하보다, 활동기간은 사회적 자본 전 영역에서 11년 이상이 10년 이하보다, 월 소득은 3백만원 초과가 3백만원 이하보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지역은 사회규범, 네트워크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사회참여는 연령이 많을수록, 거주기간, 활동기간이 길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기간과 월소득의 차이가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과 교류하는 횟수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사회적 참여는 50대가 30, 40대보다 많았다. 이는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 친목모임 등에서 30, 40대보다는 50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러한 기반이 사회적 참여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밖의 변인에서 거주기간, 활동기간이 길수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깊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으며,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나 정보를 교류하는데 있어서 거주기간, 활동기간, 월소득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생활환경 적응에서는 50대가 60대 이상보다,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이하보다, 2백만원 초과가 2백만원 이하보다 생활환경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환경 적응에 있어서 학력이나 월 소득

의 수준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는 거주기간은 31년 이상이 15년 이하보다, 활동기간에서는 11년 초과가 10년 이하보다, 월 소득에서 3백만원 초과가 2백만원 이하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거주기간과 활동기간이 긴 경우에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거주기간과 활동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잘 갖추어지게 되고 이는 가족관계 만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여가 및 노후 준비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월 소득에서는 3백만원 초과가 2백만원 이하보다 여가 및 노후 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 및 노후 준비도에서 학력과 월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거주기간은 31년 이상이 15년 이하보다, 거주지역은 동부산권이 원도심보다, 활동기간은 11년 이상이 11년 미만보다, 월소득은 3백만원 초과가 2백만원 이하보다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부산권이 원도심보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직무수행에서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활동기간은 11년 이상이 5년 이하보다, 월 소득은 2백만원 초과가 2백만원 이하보다 직무수행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활동기간, 월소득이 직무수행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마을 만들기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마을만들기 참여는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또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만들기 참여가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마을만들기 참여는 사회구성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자본은 자신들의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먼저, 마을 만들기 참여는 정보 제공에서, 사회적 자본에서는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타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이나 행사 등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에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으로 생활환경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마을 만들기 참여는 정보제공에서, 사회적 자본에서는 신뢰, 사회참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타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이나 행사 등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생활환경적응 즉 신체적 상태, 생기,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자본에서는 신뢰와 사회참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이나 행사 등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에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족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형제관계, 배우자 관계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마을 만들기 참여는 주민주도형 참여, 협력적 참여에서, 사회적 자본에서는 신뢰, 사회참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현안이나 비전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민·관의 토론이나 협의에 적극적일수록, 타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이나 행사 등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여가 및 노후준비 만족도 즉 취미나 오락, 재산만족도, 노후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마을 만들기 참여는 정보제공형 참여에서, 사회적 자본에서는 신뢰,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타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즉 친구관계, 이웃관계, 동료관계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마을 만들기 참여는 정보 제공 형 참여에서 사회적 자본에서는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타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이나 행사 등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에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직무수행만족도 즉 가족에서의 역할, 업무 역할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상경 (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강은영 (2016). 사회적 자본으로서 규범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생활지도태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은택, 강정규, 마강래 (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 강정규 (2015). 지역사회 환경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종수 (2014).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2).
- 강철희, 황지민, 오양래 (2015).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한국사회복지정책, 42(2), 1-32.
- 국토환경지속포럼 (2012).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3).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노년학, 20(3), 61-76.
- 권한경 (2011). 중년여성이 인지한 삶의 질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권수 (2014).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와 참여만족이 공동체의식과 마을만족에 미치는 영향: 마을문화체육행사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8(4), 61-81.

- 김경화, 반영운, 손철희 (2014).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도출.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93-103.
- 김근호, 이영창, 이은영 (2012).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유형. 한국디자인포럼, 35, 27-38.
- 김동완 (2013).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당진시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김귀분 (2013).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동서간호학 연구지, 19(2), 150-158.
- 김영, 이필용, 김남룡, 정규식 (2008).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1(3), 87-108.
- 김윤민 (2003). 중년기 남성의 일·가족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호 (2015).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훈 (2016). 뉴실버 세대의 학습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근 (2008). 노인의 건강에 대한인식과 삶의 질에 관한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3), 99.
- 김은아 (2015).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 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당인숙 (2017). 농촌 마을만들기 주민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연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뢰정첩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노년학, 24, 13-29.
-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5).
- 박능후, 장춘명 (2015).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배제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연구, 18, 100-140.
- 박미석, 김미영 (2012).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 수준 및 집단별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35-51.
- 박태정 (2007).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자활사업의 발전 방안.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관 (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12(7), 183-193.
- 박현아 (2012). 사회적 자본과 집단 크기 관계의 최적수준에 대한 연구: 페이스북(Facebook) 집단 크기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봉,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백경숙, 권용신 (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6.
- 부산광역시 (2012).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16). 시정백서. 부산광역시.
- 소진광 (2000). 지방자치와 사회적 자본. 한국지방자치학회 12(4),93-122.
- 서영숙 (2015).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상식, 최수일 (2010).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텔관광연구. 12(3), 173-189.
- 신중진, 송승헌 (2010).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 구조 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1), 295-306.
- 안상유 (2013). 농촌지역 마을 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영희 (2005). 우리나라 노인의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련성 연구. 한양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우재영 (2013). 경제 사회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0(2), 555-602.
- 유송자 (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건강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기홍 (2005). 한국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1-21.
- 이명주 (2002). 중년 남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사회적지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 (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4), 413-443.
- 이명예 (2004). 노인 취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이승중 (2002).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지점참여의 제도화. 지방정부연구, 6(3). 한국지방정부학회, 169-186.
- 이정규 (2009).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 자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 5-40.
- 이정인, 김계하, 오순학 (2003). **중년기 남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3), 422-431.
- 이지혜, 이명훈, 전병혜 (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국토계획 학회지, 44(1),73-85.
- 이호 (2006).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도시와 빈곤, 81, 46-60.
- 이혜자, 권순호 (201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1, 125-144.
-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파주: 법문사.
-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중철 (2013).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현송 (1999).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3), 97-117.
- 장백기 (2011).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유미 (2011).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평, 홍성만, 김선희 (2007). **시민참여 유형분류를 통한 참여성과 분석**. 행정논총, 45(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3-220.
- 조석주, 강인성 (20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진미정 (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재문 (2014).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삶의 질의 관계**. *상황과 복지*, 45: 340-372.
- 초의소, 김해몽, 홍재봉, 박미경(2010). **부산의 마을만들기 모형분석과 좋은 마을만들기 매뉴얼 작성**. 부산발전연구원.
- 최문형 (2013).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세헌, 윤이화 (2012). **지방정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 연구*, 15(1), 157-18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주민주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11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연구보고서, 409,1-209.
-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 8-25. 23, 1-2.
- 한정란, 김수현 (2004). **농촌 남녀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6, 91-118.
- 허준수 (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24, 127-151.
- Anderson, M. R.(2005) *Beyond Membership: A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Ac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s*.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Boland, R. J. & Tenkasi, R. V. (1995). Perspective Making and Perspective Taking in Communities of Knowing. *Organization*

- Science*, 6(4), 350-372.
- Cunningham, James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ramberger, M. (2001). Citizens as partners: OECD handbook on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 Helliwell, J. F.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 34-45.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World Bank (2000). The Quality of Growth / Thomas, V. Washington, D.C.: *World Bank*.
- Zimmerman, J. F. (1986).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ved. *Praeger Publishers*.

[부록]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김영옥  
이메일 ock4627@naver.com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마을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에서의 응답은 옳고 그름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순수한 학문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월    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연구자 김 영 옥 올림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설문내용	세부설명내용
1	성 별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input type="checkbox"/>
2	연 령	① 3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4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5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④ 6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3	학 력	①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②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③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교졸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원수료 <input type="checkbox"/> ⑦ 대학원졸업 <input type="checkbox"/> ⑧ 박사 <input type="checkbox"/>
4	거주기간	①10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15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③20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④25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⑤30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⑥3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5	거 주 지	부산광역시 _____ 구
6	활동기간	① 5년 이하 ② 10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③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7	월수입	① 200백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300백 이하 <input type="checkbox"/> ③ 400백 이하 <input type="checkbox"/> ④ 400백 이상 <input type="checkbox"/>
8	살고 있는 집	① 자기소유 <input type="checkbox"/> ② 전 세 <input type="checkbox"/> ③ 전, 월세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의 집 <input type="checkbox"/>
9	종 교	① 불교 <input type="checkbox"/> ② 기독교 <input type="checkbox"/> ③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④ 무교 <input type="checkbox"/>
10	직 업	①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② 회사원 <input type="checkbox"/> ③ 프리랜스 <input type="checkbox"/> ④ 무직 <input type="checkbox"/>

다음은 마을만들기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연 번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마을만들기의 마을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주민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마을만들기 안내문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마을만들기에서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마을만들기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마을만들기 아이디어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마을비전수립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마을모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마을만들기에 따른 민·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마을만들기에 따른 민·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자문을 적극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연번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척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웃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낯선사람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중앙정부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공공법규 등 법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지역 주민들은 법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지역 공공부분(국가, 자치단체, 학교 등) 종사자들은 청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지역 민간부분(기업, 자영업 등) 종사자들은 청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지역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종 법규를 준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지역사회의 각종 민간단체, 기관들은 법규를 준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축제, 음악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평생학습동아리 등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시민단체, 정치모임 등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종교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지역사회는 각 기관 및 단체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지역사회는 지치단체와 사회단체 간에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지역 공공기관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지역 각종 사회단체들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는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지역 각종 기관, 단체 간에는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일상생활만족도(여가 및 노후준비, 대인관계, 직무수행, 생활환경적응,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연번	내용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보통 이다	좋다	매우 좋다
1	귀하의 신체상태(기력, 컨디션)는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친부모와 관계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형제나 친척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활동정도(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에 대한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취미, 오락, 여가활동을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가정에서 차지하는 당신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는 이웃관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노후생활만족정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남들만큼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현재 목표달성에 만족 하십니 까?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남들에 대한 믿음이 어떠합니 까?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가 맡은 임무(가사일, 업무 등)의 수행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은 어떠하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